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44. 세 번의 화를 선언함

2013. 11. 03.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넷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 대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8:13]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라 하더라.

1. 지난 시간 넷째 나팔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만,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넷째 나팔에 대한 다른 견해들은 없는지요?

답: 있지요. 역시 일반 기독교에서는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다 같은 시기에 있을 재앙들의 다른 면들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우리교회 안에서 역사주의로 이해하면서도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역사주의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도 다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처음에 재림교인이 되었을 때 들었던 설명입니다. 그들은 넷째 나팔을 476년에 오도아케르가 로마에 진주하면서 로마의 마지막 황제인 소년 황제 로물러스 아우구스툴러스를 폐위시킨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해, 달, 별 등을 황제, 원로원 의원, 집정관들이라고 보고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황제, 원로원, 집정관이 연속적으로 폐지되는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모두 게르만민족의 로마 침입한 사건을 연대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전에는 이 해석이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역사주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도 적용이 달라져서 예루살렘 멸망, 서로마의 멸망 등으로 해석합니다. 계시록이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사실을 계시하면서 복음 활동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복음 전파의 시작부터 활동한 사실을 생각할 때 요즘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를 따라서 역사주의 입장이지만 게르만민족 대이동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 진행을 4각 기둥의 입체적 사건으로 네 측면으로 계시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나팔에 나타난 심판은 루시퍼에 대한 것이며 그 루시퍼가 햇불처럼 타는 큰 별처럼 세상에 임하여 끼친 영향에 대한 계시로 이해하고 넷째도 그 영향으로 인하여 하늘성소봉사가 덮여지고 세상이 진리에 대하여 흑암이 된 사실을 계시한 것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독수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시간 때문에 설명을 오늘로 넘겼지요?(예) 이제 독수리와 화화화라고 한 선포에 대하여 말씀을 듣기로 하지요.

답: 독수리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킹제임스 역에는 천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아에 토스인데 독수리입니다. 사본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독수리는 성경에서 재앙에 대한 상징으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렘48:40,41]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41 성읍들이 취함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호8:1]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마24:28]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런 말씀들은 독수리가 썩 기분 좋은 사건을 표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수행하는 사자 역할을 합니다.

[계12: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계시록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도 나타납니다.

[출19:4]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32:10~12]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같이 12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사40: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들은 독수리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을 나타냅니다. 또 우리가 4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둘러선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독수리입니다.(4:7). 여기의 독수리를 재앙을 표상하는 독수리로 이해해야 하나? 은총을 표상하는 독수리로 이해해야 하나 하는 것은 전후 문맥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 독수리가 화를 선언하는 것을 볼 때에 은총보다는 재앙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넷째 나팔 이후에 행하실 강력한 심판에 대해 선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중에, 독수리가 출현한 것은 남은 세 나팔로 인해 일어날 재앙의 신속성과 확실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독수리는 은총보다는 재앙을 나타내는 역할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화를 세 번 겹쳐서 말했는데, 회개의 경고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세 나팔이 울린 다음에 독수리로 하여금 공중에서 공개적으로 화화를 선포한 것은 회개하라는 공개적인 권고의 선포이기도 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 화를 연거푸 세 번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답: 불 나팔을 불 것이 세 번 남아 있기 때문에 세 번 화라고 선포한 것이기도 하고, 또 남은 세 나팔이 먼저 네 나팔의 사건보다 더 강력한 심판이라는 암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으라는 사랑의 권고를 계속적으로 거절하는데 대하여 점점 더 강력한 권고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복음을 기어이 받아들이라고 강권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시다만, 레위기 26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의 수위를 높입니다. 계속 높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끝에 그들을 권하여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볼 수 있지요. 일곱 나팔도 화의 수위가 높아지지만 결국 그 의도가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를 열망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처를 다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대신 사망에 내어주면서까지 인류가 회개하고 돌아와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데도 끝내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떠나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화가 미치는 것이지요.

4. 남은 세 번의 화는 9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제 9장으로 넘어가야 하겠습니까.

답: 그러면 9장을 읽도록 하지요. 1~12절입니다.

[계9:1~12]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3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4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5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쏘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6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7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8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9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0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1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블루온이더라 12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감사합니다. 8장의 네 나팔에 대한 기록은 아주 짧막합니다. 그런데 다섯째 나팔에 대한 기록은 열 두 절이나 되는군요. 긴 기록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나팔에 대하여서는 역사주의적으로 보면서도 관념적 사고방식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셋째 넷째 나팔의 연장선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개혁시대를 지나오면서 기독교 안에 침투한 인간 중심의 철학들이 강한 세속주의를 교회에 정착시키면서 세상의 사조들인 이신론(理神論), 허무주

의, 유물론, 진화론, 실용주의, 상대주의(relativism), 과학만능주의 등이 교인들의 사상을 지배하게 된 것을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로 풀이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다섯째 나팔을 통하여 말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설명은 비록 16~18세기라는 시대를 배경으로 말하기 때문에 역사주의적인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영적 해석이기도 하지만 관념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전쟁으로 보이는 사건을 계시해주셨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사상적인 것으로 풀이하여 관념으로 빠지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이런 설명을 바탕으로 다섯째 나팔에 기록된 상징적 언어들을 풀이합니다. 또 그런 설명을 기초로 여섯째 나팔까지 그런 시각으로 풀이합니다. 다섯째 나팔에서 상징적으로 등장한 메뚜기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섯째 나팔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로 확대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설명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 기록된 내용을 보면 관념적이거나 사상을 지배하는 사조(思潮)이기보다는 틀림없이 역사에 일어나는 어떤 현실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시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 예, 아무튼 지금은 목사님이 해설하시는 시간이니까 목사님의 시각을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9장의 내용을 쉽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계시의 내용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쉽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설명을 통하여 이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우선 9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11절의 다섯째 나팔과 13~21절의 여섯째 나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나팔은 배경이 구약성경 요엘2:1~11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엘2:1~11]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와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2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뻘뻘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3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4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5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개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향오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6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낮빛이 하얗졌도다 7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향오를 어기지 아니하며 8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처 아니하며 9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10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11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와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분위기가 비슷하지요. 그런데 요엘 1장에는 바로 메뚜기 재앙에 대하여 예언하셨거든요. 그리고 2장에는 4절에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라고 했는데, 다섯째 나팔에 표현한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요엘은 유다의 요아스 왕 시대에 선지자인데, 요아스는 그

할머니 아달라가 통치하는 동안 대제사장인 외삼촌 여호야다의 반정에 의하여 7세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했지요. 그는 요아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 요아스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외삼촌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의 잘못을 꾸짖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무렵에 유다에 메뚜기 재앙이 닥친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깨달은 요엘은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곧 말세에 닥칠 환난과 연관이 되었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요엘서의 이런 예언적 사건을 배경으로 요한에게 다섯째 나팔 사건을 메뚜기 재앙을 상징으로 사용하여 역사적으로 일어날 사건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계9:1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계9: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예, 여기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옵니다. 셋째 나팔에서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지요. 비슷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나팔에 나타난 별은 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저갱 열쇠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떨어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페프토크타”인데 이것은 완료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떨어져 있는 별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제 떨어졌습니까? 셋째 나팔에 때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은 루시퍼가 저지르는 일이 예언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6. 예~, 목사님, 루시퍼가 셋째 나팔 때에 불타는 햇불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광명한 천사처럼 행세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성전에 앉았는데, 이제는 무저갱 열쇠를 받아서 또 무슨 사단을 벌립니다. 그런데 무저갱 열쇠가 무엇입니까?

답: 무저갱이라는 말이 헬라어 신약성경에 아홉 번 나옵니다. 개역에는 8번 나옵니다. 로마 10:7에 음부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아뵤소스입니다. 그런데 70인 역, 즉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에서는 창세기 1:2에 “깊음”이라는 말은 아뵤소스로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부정성을 나타내는 “아”와 깊다는 의미인 “바두스”가 합해서 된 말입니다. 즉 끝없이 깊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70인 역에서는 테흠을 번역한 말인데, 테흠은 창1:2에 깊음이라고 번역한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71:20에는 죽은 자들의 땅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시71:20]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땅 깊은 곳이 바로 아뵤소스로 번역한 테흠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곳이 바로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 10:7에서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롬10:7]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음부라고 번역된 말이 아뵤소스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곳이 무덤을 뜻하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뵤소스는 밑이 없는 구덩이라는 말이지만, 그 뜻은 죽은 자들의 땅, 곧 묘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사망이 주장하는 곳이 아뵤소스입니다. 이 떨어진 별로 상징된 루시퍼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사망의 세력들을 동원할 권리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요.

7. 하나님께서 왜 루시퍼에게 사망의 세력들을 동원할 권리를 줍니까? 오히려 그런 권리를 빼앗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 이치로 보면 그런 것 같지요. 그러나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그는 이미 사망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루시퍼와 함께 하면 곧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 내외가 루시퍼의 말을 듣고 그와 함께 해서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 안에서 다 사망의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 지구에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미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사실 지구는 죽은 사람들끼리 싸우고 죽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세력이 맺는 열매입니다. 이런 지구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기별이 바로 복음인데, 그것이 복음인 것은 사망의 존재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생명을 얻어서 산 자가 된다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그보다 좋은 소식이 없지요.) 그런데 루시퍼는 그 소식을 올바르게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합니다. 그가 사망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일정기간 활동하도록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에 루시퍼의 본질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광명한 천사 한 때 하나님의 덮는 그룹이었던 영광의 천사가 이런 사망이 된 상태를 온 우주가 확인하도록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해소되도록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전능한 그 능력으로 당장 루시퍼를 없애버렸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가능할 수 없지요. 예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그 군대 귀신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말고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로 하니까 허락하셨지요. 저는 그 분명한 이유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루시퍼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낼 때까지 그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루시퍼가 사망이 되어서 사망의 세력을 잡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용인하시는 범위에서만 그 세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못하게 하면 사망의 세력을 휘두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는 우주를 향하여 이것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독재하시는 분이잖아요. 하고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루시퍼가 아직 자기 때가 끝날 때까지 사망의 세력을 휘두르게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저갱 열쇠를 가지게 두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럴싸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말했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그 세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세력에 대하여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생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

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8.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 설명 못한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끝내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시여, 계시록 중에도 나팔 계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하여 실마리를 제공하시고 내용을 풀어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이신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서 생명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